

조선사절이 본 메이지(明治) 일본

- 김기수의 『일동기유』를 중심으로

鄭 應 洙*

(e-mail : chunges@nsu.ac.kr)

目 次

1. 서론
 2. 사절단의 여정
 3. 김기수가 본 메이지 일본
 - 3-1. 기계문명
 - 3-2. 근대식 제도와 문물
 4. 결론
-

1. 서 론

1876년 5월 22일¹⁾ 오후 4시. 일본의 증기선 황룡호(黃龍丸)가 부산항을 출발했다. 이 배에는 김기수(金綺秀, 1832-?)를 정사로 하는 76명의 조선사절이 타고 있었다. 보통 500여명으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에 비하면 1/7정도 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다. 그들은 그해 2월 26일(2/2)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의 답례사로서 일본을 방문하는 길이었다. 제1차 수신사라 불리는 이들은 시모노세키와 요코하마를 거쳐 5월 29일(5/7) 도쿄에 도착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던 예도 시대의 조선통신사와 달리, 증기선과 기차라는 근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

* 남서울대학교 일본학(비교문학·비교문화)

1) 이 날짜는 양력에 의한 것으로, 음력을 사용한 『일동기유』에 따르면 4월 29일이다. 일본은 이미 1873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1872년 12월 3일을 1873년 1월 1일로 정함), 이 글이 주로 조선사절의 일본에서의 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한다. 음력은 필요할 경우에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했기 때문에 도쿄까지 만 일주일 만에 도착한 것이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수신사절이라는 외교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오랜 만에 접하는 일본의 모습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관찰한다. 김기수 이전에 조선 사절이 마지막으로 에도를 방문한 것은 조엄(趙曠)을 정사로 한 1764년의 갑신사절. 물론 이 갑신사절 이후에도 김이교(金履喬)를 정사로 한 1811년의 신미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었지만, 이들은 소위 역지교빙으로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고 돌아왔으므로 조선사절이 마지막으로 에도를 방문한 것은 1764년이였다. 그로부터 무려 112년 만에, 그것도 근대화가 한창 진행 중인 도쿄를 방문하는 조선 사절이었기에 일본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은 더욱 컸을 것이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박규수(朴珪壽)가 출발을 앞둔 김기수에게 “내가 나와 작위가 공연히 이같이 되어, 이번의 장유를 드디어 그대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²⁾”는 편지를 보낸 것도, 바로 근대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낸 것이다³⁾.

『일동기유(日東記遊)』는 이때의 견문을, 김기수가 귀국한 다음해인 1877년 황해도 상산부사(象山府使)로 있으면서 정리한 것이다. 전 4책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메이지 초기 일본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근대 초기 일본의 모습을 살펴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서 이 책을 중심으로 김기수가 근대화가 진행 중이던 메이지 초기 일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⁴⁾.

2) 김기수, 『일동기유』, 국역 『해행총재』 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7년, 349쪽.

3) 박규수는 초기 개화파의 중심인물로, 민규호와 함께 접견대관으로 신헌을 추천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손형부의 『박규수의 개화사상연구』(일조각, 1997, 151-159쪽)에 의하면 박규수는 1860년대 말에 이미 대일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일본의 전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또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관심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4) 제1차 수신사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田保橋潔의 「丙子修信使の差送」(『近代日鮮關係史の研究』上卷, 宗高書房, 1940), 趙桓來의 「병자(1876)수신사행과 대일인식」(『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김윤식의 「한국인의 일본관」(『일본학보』 2호, 한국일본학회, 1974), 정응수의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한국학보』 제63집, 1991), 田星姬의 「第一次修信使のみた明治日本について」(『仏教大学総合研究所紀要』 第5号, 仏教大学総合研究所, 1998), 宋敏의 「明治初期における朝鮮修信使の日本見聞」(第121回日文研フォーラム,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999), 落合弘樹의 「朝鮮修信使と明治政府」(『駿台史学』 第121号, 駿台史学会, 2004), 하우봉의 「開港期修信使の日本認識」,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 宮嶋博史·金容德編,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1), 김용구의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등이 있다. 그리고 이 선행연구가 본고를 작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지만, 정치·외교적인 부문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라 본 논문에서 직접 인용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2. 사절단의 여정

사절단의 견문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절단의 방문지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신사의 여정을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살펴보기로 하자.

5월 22일(4/29) 부산을 출발한 사절단은 시모노세키(下関)까지 그대로 직행했다. 통신사의 시대에는 반드시 들리던 쓰시마(対馬島)를 이번에는 그냥 통과한 것이다. 물론 귀로에는 쓰시마에서 1박했지만 이는 태풍 때문에 풍량이 심해 들른 것으로, 원래 예정에는 없던 일이었다⁵⁾. 그리고 이것은 이후 진행되는 쓰시마의 영락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근대 이후 일본의 관심이 서양으로 바뀌면서, 그때까지 한일관계의 중심에 있던 쓰시마가 역사의 변경지대가 된 것이다.

시모노세키에서 1박한 사절단은 고베(神戸)를 거쳐 29일(5/7) 요코하마(横浜)에 도착했다. 요코하마역⁶⁾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 신바시(新橋)역까지 간 김기수 일행은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엔료칸(延遼館)을 향했는데, 이때의 모습을 다음 페이지에 인용한 우키요에(浮世絵)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우타가와 요시토라(歌川芳虎)의 이 우키요에를 잘 보면 인력거를 타고 있는 조선사절의 모습이 보인다. 1870년 무렵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인력거는 종래의 가마보다 빠르고 기존의 말보다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는데, 사절단이 방일한 1876년에는 도쿄에만 모두 25,038대의 인력거가 있었다⁷⁾고 한다. 김기수가 인력거에 관해 언급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이것에 앉아 있었다⁸⁾”고 한 것을 보면, 사절단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田星姫, 「第一次修信使のみた明治日本について」, 『仏教大学総合研究所紀要』第5号, 仏教大学総合研究所, 1998년, 67쪽.

6) 당시 기차를 타기 위해 요코하마항에서 역으로 향하는 김기수 일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라는 영국신문의 일본 특파 화가 겸 통신원인 찰스 위그만(Charles Wirgman, 1832~1891)이 그린 그림이다. 1857년 에로호 사건 취재를 위해 위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중국에 건너갔다가, 4년 후인 1861년 일본에 파견된 위그만은, 이후 죽을 때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격동기 일본의 모습을 그림을 곁들여 위 신문에 소개했다. 김기수 일행의 일본방문도 그에 의해, 「조선사절, 일본에 오다(The Corean Embassy to Japan)」라는 제목으로 8월 26일 위 신문에 그림과 함께 소개되었다. 그는 이 기사에서 사절단의 행렬을 자세히 소개한 뒤, 이 사절단을 보기 위해 길거리를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것은 정응수의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한국학보』 63집, 일지사, 1991년 여름호) 참조.

7) <http://ja.wikipedia.org/wiki/%E4%BA%BA%E5%8A%9B%E8%BB%8A>(검색일:2010.3.29)

8) 김기수, 앞의 책, 373쪽.



〈「朝鮮信使來朝の図」- 東京經濟大学図書館 朝鮮錦絵コレクション에서〉

30일(5/8) 외무성을 방문해 도착 인사를 한 다음 6월 1일(5/10)에는 아카사카리큐(赤坂離宮)에서 천황을 만났다. 황궁이 1873년 화재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 아카사카리큐를 임시 궁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수신사절은 답례사로서 조선 임금의 국서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⁹⁾ 원래는 천황을 만날 예정이 없었다. 그런데 천황이 특별히 원해서 부랴부랴 서둘러 만나게 되었는데, 일본측에서 이렇게 서두른 것은 바로 다음날인 6월 2일 천황과 주요 각료들의 동북지방 순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0여일에 걸쳐 동북지방의 6개 현을 순방할 이 행사에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주요 각료가 상당수 동행했다. 조선 사절이 방문했는데 천황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각료가 지방 순시를 떠난 것은 조선을 경시해서인가? 아무튼 통신사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일(5/12)에는 엔료칸에서 환영연이 있었다. 하마리큐(浜離宮) 정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엔료칸은 목조 골재에 얇은 석재로 외장 벽을 마감한 서양식 건물로 메이지 전반기까지 영빈관으로 사용되다가 1892년 철거되었다¹⁰⁾. 연회 후에는 박물관을 견학했는데, 우에노(上野) 박물관 개관이 1882년이므로 김기수가 방문한 것은 우치야마시타초(内山下町)에 있던 박물관이었을 것이다. 이 박물관은 유시마성당(湯島聖堂) 박람회에 출품된 물품들을 모아 1873년에 만든 것으로, 우에노 박물관은 이 박물관의 소장품을 넘겨받아 개관한 것이다¹¹⁾.

9) 落合弘樹, 「朝鮮修信使と明治政府」、『駿台史学』第121号、駿台史学会、2004年、3쪽.

10) 湯本豪一, 『일본 근대의 풍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 옮김, 그린비, 2004, 446-447쪽.

유시마성당은 유시마에 있는 공자묘(孔子廟)를 가리키는 것으로, 에도시대에는 막부 직할 교육기관인 쇼헤이코(昌平黌)도 이곳에 있었다. 메이지 이후에는 한 때 문부성, 국립박물관 등이 있었는데¹²⁾, 박람회도 여기서 개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6일(5/15)에는 히비야(日比谷)공원에 있던 육군성 연병장에서 서양식 보병, 기병, 포병의 훈련 모습을 참관했다. 페리 내항 이후 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본은 1862년 군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서양식 보병, 기병, 포병을 창설하고, 1873년에는 국민개병제의 기치 아래 징병제를 실시하여 강병정책을 추진했다. 돌아오는 길에 외무성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7일(5/16)에는 외무대승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少一)의 집 장화원(長華園)을 방문했는데, 미야모토 부모의 정중한 대접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또 아토미 가케이(跡見花溪)도 만났는데, 그녀는 아토미(跡見)여학교를 세운 일본 여성교육의 선구자로서 화가, 서예가로서도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김기수도 그녀의 그림을 보고 정교함이 묘경에 들어갔다고 했다.

8일(5/17) 해군성에서 대포와 수뢰포 쏘는 것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집에 들렀다. 이노우에는 강화도조약 체결 시 특명전권 부변리대신(副弁理大臣)으로 활약한 인물인데, 김기수는 그를 “군무와 국정의 이해 문제를 말하는데, 조리가 정연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니 이 사람은 재지(才智)가 많고 기밀사무를 잘 아는 사람¹³⁾”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9일(5/18)에는 사진을 찍었다. 촬영은 아사쿠사(淺草)에 있는 우치다 구이치(内田九一)사진관에서 출장을 나와 찍었다. 우치다는 궁내청 어용 사진사 제1호로 1872년과 1873년 2차례에 걸쳐 메이지 천황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유명하다. 1875년 2월 17일에 죽었으므로 김기수의 사진은 2대 우치다가 찍었을 것이다. 2대 우치다는 친척 중에서 뽑았다고 한다¹⁴⁾.

10일(5/19)에는 전 쓰시마 도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후카가와(深川)저택을 방문했는데, 김기수는 소 집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게마사에 대해서는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연금되어 있는 것¹⁵⁾이라며 그의 처지를 동정했다. 귀로에 태풍 때문에 쓰시마에 입시 기항했을 때 만난 시게마사의 부친 소 요시요리(宗義和)에 대해서도 장

11) 湯本豪一, 위의 책, 399-401쪽.

12) <http://ja.wikipedia.org/wiki/%E6%B9%AF%E5%B3%B6%E8%81%96%E5%A0%82>(검색일: 2010.3.29)

13) 김기수, 앞의 책, 395쪽.

14) <http://www.geocities.jp/photography1862/kikakusitu/kenkyuuhoukokusyoy/utidakuitikou.html>
(검색일:2010.4.20)

자(長者)라 했으며, 그 자손들도 모두 준수하다고 칭찬했다.

11일(5/20)에는 모리야마 시게루의 집을 방문했는데 음식은 넉넉했지만 조금 억지로 접대하는 듯 한 기색이 있다고 했다. 일종의 인물평에 해당하는 「결식(結識)」 편에서도 “말을 잘하여 입을 한번 열기만 하면 이것 저것 복잡한 것을 인용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만들며 항상 자기 자랑을 하며 뽐내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¹⁶⁾”며 부정적인 평을 했다. 12일(5/21)에는 육군성의 병학료를 방문했는데, 육군병학료는 1871년 오사카병학료가 도쿄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육군병학료에서 1874년에 육군사관학교, 1875년에는 육군유년학교가 각각 독립했기 때문에 김기수가 방일한 1876년에는 이미 폐지된 상태였다¹⁷⁾. 따라서 김기수가 방문한 곳은 아마도 육군사관학교였을 것이다. 이후 소식정에서 점심을 먹고 공부성 공학료에서 각종 병기 제작과 전신기 등을 구경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공부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집에서 베푼 연회에 참석했다.

14일(5/23)에는 문부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개성학교(開成學校)와 도쿄여자사범학교를 견학했다. 1871년 학술·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설립된 문부성은 당시 유시마성당 구내에 있었는데 도쿄여자사범학교도 같이 있었다. 1875년 설립된 도쿄여자사범학교는 오차노미즈(お茶の水女子大學)대학의 전신이고, 개성학교는 도쿄대학(東京大學)의 전신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15일(5/24)에는 원로원을 방문한 다음 엔료칸에서 송별연을 가졌고, 17일(5/26)에 외무성을 방문하여 귀국 인사를 했다.

18일(5/27) 귀국길에 올랐는데 기본적으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다만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다음에 요코스카(橫須賀)에서 하룻밤 잔 것이 올 때와 다른 점이였다. 이는 일본측에서 요코스카에 있는 조선소를 견학시키려 했기 때문인데, 김기수는 병을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21일(윤5/1) 고베에 도착했다. 원래는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오사카(大阪) 조폐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김기수가 진짜로 병이 나는 바람에 취소되었다. 고베-오사카 노선은 신바시-요코하마 노선에 이어 일본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노선으로, 1874년에 개통되었다.

23일(윤5/3) 고베를 출발한 일행은 태풍으로 예정에 없던 쓰시마에 기항하는 등 시간을 빼앗겨 27일(5/7)이나 돼서야 부산에 도착했다.

15) 김기수, 앞의 책, 395쪽.

16) 김기수, 앞의 책, 395쪽.

17) http://www.sakanouenokumo.jp/dic/archives/2006/01/post_260.html(검색일:2010.3.10)

이상 김기수 일행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보면 사절단의 일정이 근대문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도 「완상」에서 “그 제도(制度)·기계에만 종사한 까닭에 누관(樓觀)·시사(市肆)의 승경(勝景)과 산천·풍경의 완상에도 받은 값으나, 눈이 이르지 않은 곳은 열에 하나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¹⁸⁾”며, 본인의 견문이 근대의 제도와 기계문명에 집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김기수의 근대문명관을 기계문명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과 근대식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3. 김기수가 본 메이지 일본

3-1. 기계문명

배를 타는 날에는 위의(威儀)를 크게 갖추고 초량진(草梁津)으로 나아갔다. 바라보니 한 척의 큰 배가 바다 중류(中流)에 서 있는데, 협판(夾板)·쌍범(雙帆)과 돛대 사이의 연통(煙筒)은 가위 몽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중략) 배의 제도는 자세히 보아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나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여 마음대로 구경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대개 한 척의 배가 모두 기관이라, 한 개의 기관이 고장나면 한 척의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배 안에서 배를 움직이고 배를 부리는 일에 각기 맡은 사람이 있으며, 별도로 몇 사람은 사람마다 각각 기름 한 병과 수건 한 개씩을 가지고, 때때로 기관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수건으로 닦기도 하여, 구리쇠 기둥과 쇠밧줄이 모두 거울처럼 윤택이 났다¹⁹⁾.

김기수가 처음 접한 근대문명은 증기선이었다. 초량진에서는 이미 13일부터 수신사절을 태우고 가려고 일본의 증기선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는 먼저 증기선의 크기에 놀라고 있다. 사절단이 동래부에 도착하자 동래부에 있는 일본 공관에서 규조(規條) 3책과 사절단이 타고 갈 황룡호 그리고 도쿄의 숙소인 연료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내왔다. 규조 3책이란 사절을 영접하는 절목(節目)과 함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에 관해 적은 것으로, 사절로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문서이다. 따라서 규조 3책과 함께 보내온 황룡호의 그림을 김기수가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그는 배를 타기 전에 미리 황룡호의 모습

18) 김기수, 앞의 책, 381쪽.

19) 김기수, 위의 책, 361-362쪽.

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황룡호를 보고는 그 크기에 놀라고 있다.

1868년에 진수한 황룡호는 당시 우편기선 미쓰비시(三菱)회사 소속의 목철 혼합(木鐵混合)기선이었다²⁰. 총톤수 617톤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배지만, 근대식 선박을 처음 대하는 김기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놀라움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곧 이어 증기선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본다. 비록 말은 “배의 제도는 자세히 보아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나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여 마음대로 구경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 했지만, 배의 전체적인 모양, 갑판, 선실의 내부 구조, 기관실 등을 꼼꼼히 관찰하고 이에 대해 실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횡빈(橫濱)에서 신교(新橋)까지는 화륜차(火輪車, 기차)를 탔는데, 역루(駅樓)에서 조금 쉬었다. 일행의 행장은 배로 곧장 강호(江戶)가까운 항구까지 보내고 몸에 필요한 의금(衣衾)과 기물만은 차에 싣기로 하였다. 차가 벌써 역루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기에 역루 밖에서 또 복도를 따라 수십 칸을 다 지나갔는데도 차는 보이지 않았다. 기다란 행랑(行廊) 하나가 40-50칸이나 되는 것이 길가에 있기에 차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차라고 한다. 보니, 조금 전에 기다란 행랑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차이지 행랑은 아니었다. (중략)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 차의 화륜이 한번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가 따라서 모두 구르게 되는데 천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한 시간에 3-4백리를 달린다고 하는데도 차체는 안온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다만 좌우의 산천·초목·옥택(屋宅)·인물만이 보이기는 하나, 앞뒤에서 번쩍번쩍하므로 도저히 견잡을 수가 없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벌써 신교(新橋)에 도착되니, 곧 90리 길을 온 것이다²¹).

그는 이미 일본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요코하마에 도착하면 도쿄까지 기차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²², 「기차」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눈앞

20) http://homepage3.nifty.com/jpnships//meiji01/meiji01_yunyusen01.htm#kworiomaru(검색일:2010.3.9)

21) 김기수, 앞의 책, 383-384쪽.

22) 앞에서 언급한 구조 3책 중의 하나인 「관외서」의 제 8조에 “배가 횡빈항(橫濱港)에 닿으면 상륙하여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갈 것인데, 횡빈항에 도착하면 특별히 외무 관원이 있어 귀 수신사의 입경(入京)행차에 전도(前導)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김기수는 이미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요코하마에서 도쿄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동기유』 459쪽)

에 두고도 기차가 어디에 있냐고 일본인에게 묻는 실수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곧 이어 황룡호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관차, 객실의 구조와 장식, 그리고 철로 등에 관해 면밀한 관찰을 행하고 있다. 특히 철로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양쪽가의 수레바퀴 닿는 곳은 편철(片鉄)을 깔았는데, 이 편철의 모양이 밖은 들리고 안은 굽어서 수레바퀴가 밟고 지나가도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²³⁾”라며, 기차가 탈선하지 않는 이유를 철로의 모양으로 설명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 운행된 기차는 모형이었다. 즉 1853년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한 러시아 사절 푸차친(E. V. Putjatin) 제독이 일본인들을 초청해 함상에서 모형기관차를 시운전했던 것이다. 이때 초청받은 사람 중에 사가한(佐賀藩)의 사무라이도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1855년 사가한에서 증기기관차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 나가사키에 이어 1854년 요코하마에서도 모형 증기차가 운행되었는데, 이때는 비록 모형이지만 일본인이 객차 지붕에 엮드려 시승했다. 이 모형 증기기관차는 미국의 페리(M. C. Perry) 제독이 2번째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쇼군(將軍)에게 줄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1865년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영국인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증기기관차의 시범운행을 1개월 정도 했었고, 1869년에는 홋카이도(北海道)의 가야누마(茅沼)탄광에서 우마를 사용한 탄광궤도(炭鋏軌道)가 운행을 개시했다. 그러나 영업용 철도가 정식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1872년이었다. 먼저 6월 12일(5/7) 시나가와(品川)역에서 요코하마역까지 임시 영업을 개시했고, 10월 14일(9/12)에 신바시역에서 요코하마역까지 정식 개업해서 그 다음날부터 여객 영업을 시작되었다²⁴⁾. 김기수 일행은 바로 이 노선을 이용해서 도쿄까지 간 것이었다.

전신(電信)도 그를 놀라게 한 것 중의 하나였다. 그는 공부성에서 전신기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부성에서 이것을 살펴보니 전신선(電信線) 끝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설령줄[舌鈴索]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평상에 내려뜨려 놓고 평상 위에는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기계 옆에는 궤(櫃)와 같은 기구가 있고, 그 속에는 전기가 있다. 손으로 그 기계를 두드리니 전기가 궤에서 발생하여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면서 바로 선을 타고 올라간다. 옆에는 또 기구 한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목수의 먹통과 비슷하다. 통 속에 막대가 있어

23) 김기수, 앞의 책, 384쪽.

24) 湯本豪一, 위의 책, 362-363쪽.

[http://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9%89%84%E9%81%93%E5%8F%B2_\(%E6%98%8E%E6%B2%BB\)](http://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9%89%84%E9%81%93%E5%8F%B2_(%E6%98%8E%E6%B2%BB))(검색일:20103.12)

이것이 들고 있는데, 옆에는 또 종이 두루마리가 있어, 한쪽 끝이 곧바로 막대 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두르면[罫] 종이 위에 글자가 나타난다. 옆의 종이를 또 펼치니 역시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쪽에서 저쪽에 통보하기 위한 글이었다. 막대기에 돌린 종이의 글자가 곧 기구 옆에 펴놓은 종이의 글자이니, 한자 한자 자체(字体)의 구별은 없어도, 누가 옮겨 썼는지 문득 저쪽에 나타나 있다. 앞에 가서 보니 종이가 막대에 오르기 전에는 글자가 없다가 막대에 오르자마자 곧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 막대와 종이는 선(線)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모두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 이 때 저쪽은 천리 만리를 헤아릴 것도 없이 전선의 저쪽 집에 들어간 것은 선에서 문득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통 속의 막대는 돌게 되며, 막대가 돌면 종이의 돌린 것은 풀려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면 글자가 나타나게 되니, 곧 이쪽 막대에 돌린 종이의 글자인 것이다. 저쪽 일은 보지 않아도 이쪽 것으로 저쪽 것을 미루어본다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만 리나 되는 장거리에 전신하더라도 다만 같은 시간에 되는 것이다²⁵⁾.

그러면서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므로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에 전신기가 처음 소개된 것도 1854년 페리에 의해서였다. 그가 모형 기관차와 함께 전신기도 가져왔던 것이다. 요코하마에 상륙한 페리는 막부가 외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설치한 응접소와 벤텐사(弁天寺) 경내에 있던 저택 사이의 약 1마일 거리에 전선을 가설하고 시험통신을 실시했다. 이때 'yedo, yokohama'란 문자를 보냈는데 바늘을 통해 순식간에 문자를 보내는 기계를 보고 당시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전신이다. 이 전신기는 이후 창고에 보관된 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 후 몇 번에 걸친 실험 끝에 1869년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서 상업용 전신이 실용화되었다²⁶⁾.

가스등도 그를 놀라게 한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다. 김기수는 도쿄에서 가스등을 본 감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로 위에는 5간과 10간 거리에 이따금 한 개의 등대를 세워 위에는 유리등을 켜으니, 기운데도 없고 틈도 없이 천연적으로 만들었다. 등 속에는 잔도 있고 심지도 있었는데, 심지는 저절로 서 있어도 기름은 없었다. 날이 어두워 등불을 켤 때는 사람이 한 번 기계를 움직이면,(기계가 어디 있는지 그 곳을

25) 김기수, 앞의 책, 390쪽.

26) 湯本豪一, 위의 책, 336-338쪽.

알 수가 없었다.) 등불이 저절로 켜져 날이 셀 때까지 꺼지지 않으며, 사람이 또 기계를 움직이면 등불이 저절로 꺼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밤이 깊어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은 등을 들지 않았다²⁷⁾.

밤에 제등(提燈) 정도나 들고 다녔을 김기수에게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가스등은 근대문명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을 것이다. 사실 가스등은 문명개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물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존재하던 밤의 세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호롱불빛이 비추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야간 생활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가스등이 최초로 점등된 것은 1871년이었다. 오사카 조폐국에서 기계 연료로 사용하던 가스를 유용하는 형태로 공장 안과 근처를 밝혔는데, 이때 사용된 가스등이 현재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스등이 본격적으로 가로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72년 요코하마부터였다. 이후 1874년 도쿄에서 가스등이 점등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이에 따라 가스등에 불을 붙이는 신종 직업인 점등꾼도 생겨났다. 저녁때가 되면 긴 장대를 든 점등꾼이 가스등에 하나하나 불을 붙이면서 돌아다녔다²⁸⁾. 따라서 김기수가 가스등을 보고 등불이 저절로 켜진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3-2. 근대식 제도와 문물

6월 3일(5/12) 김기수 일행을 환영하는 환영연이 엔료칸에서 열렸다.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実美)가 주관하는 공식연회였다. 음식은 서양요리가 나왔는데, 그 때의 모습을 김기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의 면전에는 각각 자기(瓷器) 접시 두 개를 놓았는데 접시 한 개에는 백포(白布)와 떡을 담았으니 백포는 음식을 먹을 적에 물방울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것이고, 떡은 음식 먹는 데 돕는 것이다. 접시 한 개는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빈 접시의 왼편에는 대·중·소의 숟가락 세 개가 있는데, 이(齒)가 있어 음식을 젓가락질할 수도 있으며 찍어 먹을 수도 있다. 오른편에는 칼이 두 개가 있고 뒤쪽에도 숟가락이 두 개가 있는데, 모두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다. 이에 음식을 갖다 주는데, 단단한 것과 연한 것, 국물과 절육(切肉)은 적은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 단단한 것과 절육은 이빨이 있는 숟가락으로 누르고 칼로 베었으며, 연한 것과 국물은 숟가락으로 떠먹을 뿐이었다. 혹

27) 김기수, 앞의 책, 441쪽.

28) 湯本豪一, 위의 책, 152-153쪽.

은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도 하고 혹은 칼로 베어 먹기도 하는데, 한번 먹고 나면 그것을 접시 위에 놓아두었다. 이에 시자(侍者)가 그 접시를 가져다 깨끗이 씻어 도로 놓으니 칼은 칼 있던 자리에 도로 놓여있고, 숟가락은 숟가락이 있던 자리에 도로 놓여 있는데, 다시 음식을 가져와 전과 같이 먹었다. 접시를 물리고 칼과 숟가락을 도로 제자리에 놓는 것을 전과 똑같이 하였다²⁹⁾.

백포는 냅킨, 떡은 빵, 칼은 나이프, 이빨이 있는 숟가락은 포크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단한 것과 절육은 이빨이 있는 숟가락으로 누르고 칼로 베어 먹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먹은 것은 스테이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식사하는 과정을 관찰자적 시선으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아마도 처음 접하는 서양음식과 식사법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을 통해 일본에 서양요리가 전해진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역시 에도 말기부터이다. 1850년대 후반에 이미 나가사키에 서양요리집이 문을 열었고, 1860년대 중반에는 에도에도 서양요리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187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도쿄 곳곳에서 서양요리점이 경쟁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고 1875년에는 궁중에서도 서양요리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³⁰⁾. 따라서 김기수가 방일했던 1876년에는 서양요리가 상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김기수는 소위 신식학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6월 14일 문부성과 개성학교, 도쿄 여자사범학교 등을 견학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른바 학교도 그 명칭이 하나뿐만 아니니 개성학교(開成學校)도 있고 여자학교도 있고 영어학교도 있고, 여러 외국어학교도 있었다. 사범(師範)이 정중하고 교수합도 근실하였으나 공리(功利)의 학문에 지나지 않았다. 매우 부지런하고 노력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으니 그 정교함은 미칠 수 없으며, 그 근실함은 더욱 미칠 수가 없었다. 산계(算計)를 정밀히 하고 규획(規劃)을 상세히 함은 바로 진(秦)나라 상양(商鞅)도 풍문만 듣고 달아날 정도이며, 송(宋)나라 왕형공(王荊公)도 옷을 여미고 경의를 표할 만하였다³¹⁾.

그는 먼저 학교가 다양한 것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범위를 국립으로 한정

29) 김기수, 앞의 책, 402-403쪽.

30) 湯本豪一, 위의 책, 316-317쪽.

31) 김기수, 앞의 책, 447-448쪽. 단 인용문 중의 ‘여자학교도 있고’란 부분은 『일동기유』 번역본에는 없는 부분인데, 원문이 ‘有女子學校’라 되어 있기에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해 말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영어학교, 외국어학교 등은 모두 개성학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들이다. 따라서 좀 장황한 감이 있지만, 개성학교에 대해 잠깐 알아보기로 하자.

개성학교는 에도시대 양학연구기관이었던 개성소(開成所)에서 발전한 것이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있던 유학 중심의 쇼헤이코(昌平黌)를 창평학교, 양학중심의 개성소를 개성학교, 서양의학 중심의 의학소(医学所)를 의학학교로 개칭했다가, 1869년 이 세 학교를 통합해 대학교를 설립했다. 이 대학교는 창평학교를 개편한 본교(本校)와 개성학교와 의학소를 아우르는 분국(分局)으로 구성되었는데, 후에 대학교가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학 본교의 동쪽에 있던 의학소는 대학동교(大學東校)로, 본교 남쪽에 소재한 개성학교는 대학남교(大學南校)로 개칭되었다.

1873년 이 대학남교가 전문학교로 전환하면서 다시 개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종래의 어학과정에다 법학·화학·공학·광산학·제예학(諸芸學) 등 5개의 전문과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에 어학과정이 분리 독립하여 지금의 도쿄외국어대학 전신인 도쿄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고, 남은 전문과는 1874년 개성학교가 다시 도쿄개성학교로 바뀌면서 수업연한 3-4년인 법학·화학·공학의 3과로 이루어진 본과로 재편하고, 추가로 수업연한 3년인 예과를 설치했다. 그리고 1874년 이 도쿄외국어학교에서 영어과가 분리되어 도쿄개성학교의 예비교육과정으로 설립된 것이 도쿄영어학교였다. 이 도쿄영어학교는 1877년 도쿄개성학교가 구제 도쿄대학으로 바뀌면서 도쿄개성학교 예과와 통합되어 도쿄대학 예비문이 된 다음 제일고등학교로 바뀌게 된다³²⁾. 따라서 김기수가 방일한 1876년에는 개성학교가 이미 도쿄개성학교로 개칭한 후이고, 도쿄외국어학교와 도쿄영어학교 등이 있던 때였다.

한편 일본에서의 여자학교는 1870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 키더(Mary E. Kidder)가 요코하마에서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연 것이 시초로, 이것이 나중에 페리스(Ferris)여학원이 된다. 1872년에는 국립도쿄여학교와 교토부립여학교, 1875년에는 도쿄여자사범학교와 아토미여학교 등이 문을 열어, 본격적인 여성교육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이 무렵의 여학생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낯선 존재였다. 당시 여학생의 모습을 소개한 책자가 괴담집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학생의 출현을 괴담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³³⁾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김기수는 외무대승 미야모토의 집에서 만난 아토미여학교 학생들

32) <http://ja.wikipedia.org/wiki/%E9%96%8B%E6%88%90%E5%AD%A6%E6%A0%A1>(검색일:2010.3.29)

33) 湯本豪一, 앞의 책, 410쪽.

을 보고 “모두가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절하고 꿰어앉는 예절도 아름답고 단정하였으니 대가(大家)의 규범임을 알 수 있었다³⁴⁾”며 여학생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신식학교에 대해서도 비록 공리에 치우친 공부를 한다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정교함과 근실함은 상양이나 왕안석 등이 울고 갈 정도로 대단하다며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모든 동작(動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약(條約)을 명시하고, 금하고 휘(諱)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었으니, 대개 그 정세(精細)함이 여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일사(一沙)·일석(一石)의 운반과 일미(一米)·일전(一錢)의 비용까지도 매우 정밀히 계산하고 번잡하게 게시(揭示)하였으므로, 너무 정밀하여 천착(穿鑿)된 것이 있기도 하고, 너무 자세하여 번쇄(煩碎)한 것도 있기는 하나, 상하가 같은 규정으로서 조금도 착오된 것이 없었으니, 또한 취할 점이 많았다³⁵⁾.”라 했다. 즉 너무 자세하여 때로는 번거로울 경우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규정을 명문화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점 등은 본받을 만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유효한 평가이다.

김기수는 원로원도 방문했다. 처음에는 친왕(親王)이 사사로이 부르는 줄 알고 거절했지만, 친왕이 원로원 의장의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이란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했다. 원로원은 1875년 창설된 입법자문기관으로 최초에는 행정관의 위법행위를 추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각의 견제로 점차 힘을 잃어가다 제국 헌법 시행을 앞둔 1890년 폐지된 조직이다. 최초의 의원으로 유리 기미마사(由利公正),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등 14명이 임명되었고 이들의 투표에 의해 고토가 부의장에 취임했다³⁶⁾. 그리고 1876년 5월 18일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有栖川宮 熾仁)친왕이 칙선 의장으로 취임했다³⁷⁾. 김기수가 방문했을 때는 친왕이 의장에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원로원도 아직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원로원(元老院)은 문장(門牆)이 매우 높고 가지런하다. 한번 이곳에 가보니 이른바 어문(御門)이란 곳이 다른 관아와 비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2품(品) 관직의 친왕(親王)이 나와서 우리를 맞아 인도하여 의사당(議事堂)으로 갔다. 의사당은 높다랗고 평직(平直)한데 바로 길다란 탁자를 놓고 양쪽 가에

34) 김기수, 앞의 책, 405쪽

35) 김기수, 앞의 책, 449쪽.

36) 湯本豪一, 앞의 책, 64쪽.

37) 宋敏, 「明治初期における朝鮮修信使の日本見聞」,
<http://www.nichibun.ac.jp/graphicversion/dbase/forum/text/fn121.html>(검색일:2010.3.25.)

의자 1백 10여 개를 설치하였다. 여기는 큰 회의가 있을 때 그들의 황제가 친히 임석하고 의관(議官)들이 늘어앉는 곳이라고 한다. (중략) 당(堂) 안의 탁자 옆에 있는 의자 뒤에는 또 각각 수많은 작은 의자를 벌여 놓았다. 정사를 의논할 때는 별일 없는 조관(朝官)과 평민들까지도 모두 들어와 앉아서 듣는다고 한다. 거북도 응종(應從)하고 시초(筮)도 응종하고 백관도 응종하고 서민도 응종한다는 뜻이었다. (중략) 대개 그 규정과 법도가 범람(汎濫)하므로 예법으로써 개괄해 논할 수는 없으나, 광원(廣遠)하고 활대(濶大)하여 쇠퇴하고 비하(卑下)한 기상은 아니었으니, 그것이 모두 지금 황제의 경륜이라 하였다³⁸⁾.

옛날에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점을 쳐 그 길흉을 알아보았는데, 이때 거북과 시초를 사용했다. 거북은 신령한 힘을 가진 영물이고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인 시초도 신령스러운 풀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북도 응종(應從)하고 시초(筮)도 응종하고 백관도 응종하고 서민도 응종한다’는 말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온 백성이 의사당에 나와 방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는 뜻이다. 의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듯하다. 사실 그는 원로원 방문 여부를 놓고 언쟁을 할 때 원로원이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곳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날도 안내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을 것이므로 원로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예법으로는 논할 수 없지만 ‘광원하고 활대하여 쇠퇴하고 비하한 기상은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기수는 근대의 기계문명을 목격하고 그 위력에 놀랐다. 육군성 정조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해 온갖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한 개의 화륜으로써 천하의 능사를 다 만들게 되니 기교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³⁹⁾”라고 놀란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곧 바로 자기가 본 것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 한문이라는 표기문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적어놓았다. 처음 보는 근대의 기계 문명에 많은

38) 김기수, 앞의 책, 392쪽.

39) 김기수, 앞의 책, 505쪽.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가 『일동기유』를 저술하면서 역대 통신사들이 즐겨 사용하던 일기체를 버리고, 사건별로 제목을 앞세우고 관계된 기사를 한 데 모아 서술하는 기사본말체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관련 사항이 여기저기 날짜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기체로는 자기의 견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신식학교나 서양음식 같은 근대의 제도나 문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신식학교에 대해 유교의 경전은 무시하고 공리의 학문만 배운다고 비판하면서도 정교함과 근실함을 칭찬한 것이나, 여학생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진 것, 원로원에 대해서도 예법으로는 논할 수 없지만 광원하고 활대하다고 한 것 등을 보면 근대의 제도나 문물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감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은 500년 동안이나 복식제도의 변함이 없다며 일본인의 서양화한 복식제도를 조롱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명나라의 복식제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조선밖에 없다며, 청이나 일본의 복식제도를 무시하던 조선사절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원래 일본인의 의복이 서양인의 의복보다 나을 것이 없으므로, 일본의 복식제도를 서양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⁴⁰⁾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렇지만 비록 서양인의 옷이지만 군대를 부리는데 유리하므로 메이지 천황이 과감하게 이 제도를 채택했다며 메이지 천황을 칭찬한 것이나, 주머니가 있어 필기도구나 시계 등을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를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한 부분⁴¹⁾들을 보면 양복의 실용적인 측면은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기수는 처음 본 근대의 여러 문물을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여행기에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러한 근대문물에 대해서도 호감⁴²⁾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당시 조정이 개화와 수구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피병을 부려 요코스카 조선소 견학을 거절하는 등 견학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가 자기의 견문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0) 김기수, 앞의 책, 512쪽.

41) 김기수, 앞의 책, 378쪽.

42) 하우봉도 「開港期修信使の日本認識」(宮嶋博史·金容徳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Ⅰ』,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1, 198쪽)에서 메이지 일본에 대한 김기수의 평가가 대체로 호의적이라 했다.

【參考文獻】

- 김기수(1977) 『일동기유』, 국역 『국역해행총재』 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湯本豪一(2004) 『일본 근대의 풍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 옮김, 그린비.
- 손형부(1997) 『박규수의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51-159쪽
- 정응수(1991)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 『한국학보』 제63집, 106-124쪽.
- 宋敏(1999), 「明治初期における朝鮮修信使の日本見聞」(第121回日文研フォーラム、1999年9月7日、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報告記録 <http://www.nichibun.ac.jp/graphicversion/dbase/forum/text/fn121.html>
- 田星姫(1998), 「第一次修信使のみた明治日本について」, 『仏教大学総合研究所紀要』第5号, 仏教大学総合研究所, 67쪽.
- 河宇鳳(2001) 「開港期修信使の日本認識」, 宮嶋博史·金容徳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98쪽.
- 落合弘樹(2004), 「朝鮮修信使と明治政府」, 『駿台史学』第121号、駿台史学会、3쪽.
인터넷 웹사이트(주로 일본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要 旨

本稿は朝鮮使節が近代化の進行しつつあった明治日本をどのように見ていた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テキストは第一次修信使節（1876年）の正使金綺秀(1832-?)の著した『日東記游』を使用した。

金綺秀は初めて接する近代の所産物に好感を示していた。彼が好奇に溢れる目で近代文物を観察したあと、漢文という表記文字の限界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観察結果を自分の旅行記に細かく記録したのが、これを裏付けている。

ところが、彼は見学自体には消極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当時の朝鮮朝廷が改革派と守旧派に別れていたからである。すなわち、この両勢力を意識せざるを得なかった金綺秀としては、その中間というべき方法を選択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それで「道理」を見聞の原則に決め、日本人が道理にそむかなければ従うが、また自分で進んで見学もしないという消極的な見学態度を維持してい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 第一次修信使節、明治日本、近代化、金綺秀、日東記游、道理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